



■ 오 경 록

- 남덕에스피에프 대표
- 이학박사

1. 야생조류의 ND바이러스 보유현황

ND 바이러스는 9,000종에 이르는 거의 모든 조류가 감수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ND 바이러스는 야생조류에 대한 병원성은 바이러스주와 새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가금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같이 대부분 철새와 물새류가 ND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들의 거의 대부분은 닭에 대하여 약독이다. 발병정도로 볼 때 조류 가운데 감수성이 높은 것이 닭 등의 가금이 포함되어 있는 꿩 종류이지만, 앵무새 종류, 타조 종류와 비둘기 종류 등도 감수성이 높다. 약간 감수성이 낮은 것은 펭귄, 매 등의 황새종류, 올빼미 종류와 가장 많은 참새 종류 등이다.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물새류를 포함한 기러기, 오리 종류, 뼈꾸기 등의 두견새 종류, 갈매기 등의 황새종류의 일부, 그리고 뜰부기, 학, 두루미 등의 두루미 종류 등이다.

상기의 그룹을 나눈 것은 어디까지나 경향을 표시한 것이다.

강독 ND바이러스에 감염된 앵무새로부터 1

년이상 바이러스가 배출된 경우가 보고되고 있으며, 어느종류의 야생조류는 장기간 바이러스를 보유하는 것이 예상되어 감염원으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미국 동물 검역소의 조사에서는 1974~1981년에 2,274종의 애완조류군에서 147주의 ND 바이러스를 분리하였다고 하였다. 이렇게 수출입에 의한 애완조류의 이동이 ND 바이러스의 전세계 이동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JSPD. 2002.3)

2. 타조에 가금질병 병원체의 감염상황

1933년 이전에는 타조 질병을 대대적으로 조사한 보고는 없다.

1944년에 짐바브웨이의 9개 농장에서 149수의 타조 혈청을 이용하여 11개의 가금의 병원체를 조사하여 칠면조 비기관염 바이러스 (TRTV)99%, 뉴캣슬병 바이러스(NDV)23%, 닭 레오바이러스 19%, 감보로병 바이러스 15%, 닭 뇌척수염 바이러스 15%, 마이코프라스마 갈리셉티쿰과 시노비에 (MG와 MS)11%, 세망내피증 바이러스(REV)10%, 살모넬라 엔

트리티디스 8%, 닭 백혈병 바이러스 3%, 전염성 기관지염 바이러스 2%, 파스튜레라 멀토시다 1% 미만의 양성을 보이고 TRTV와 NDV는 전체 농장에서 양성이었다고 보고하였다.

2000년에 미국 오하이오주와 인디애나주의 도축장에 들어온 12~14개월령의 타조 혈청 163개에 대하여 조사하였는데 감보로병 바이러스, MG와 MS, 추백리균(SP), 살모넬라 티피뮤리움에 관해서는 음성이었으나, 가금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뉴캣슬병 바이러스, 파라미소 바이러스 2, 3, 7형에 대해서는 양성이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타조 채혈에 관해서는 야마가다현 중앙 가축보건위생소의 2001년 지구연수회에서 자세하게 소개하였다. 간단하게 기술하면, 타조는 성숙 체중이 100kg을 넘고 운동능력도 강해서 채혈을 위해 접근할 때는 채혈자의 안전 확보가 필요하다. 특히 발정 중의 수탉(♂)은 공격할 때도 있으므로 주의해서 접근해야 한다. 또한 포획시에는 돌진, 격돌하여 골절을 입기 때문에 조용히 접근해야 한다. 채혈시 보정은 눈으로 보기 때문에 큰 포대를 손으로 잡고, 조용히 접근하여 한번에 포대를 두부에 씌운 다음, 동체 측면에서 압박하여 고정한다. 이때 전방에서 채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측면 보정시에 두부 보정자가 두부를 하방향으로 유도하여 누르고 채혈자는 경정맥으로부터 채혈한다. (JSPD.2002. 3)

3. 농장단계에서 살모넬라균 대책

살모넬라균은 대장균과 같이 장내세균과에 속하는 세균으로 현재 2,300여종의 혈청형이 분류되어 있다. 그 중 일부가 사람이나 닭에게

병원성을 나타낸다. 또한 최근에는 닭에서는 뚜렷한 병원성이 없어도 사람에게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이 식품 위생상 문제가 되고 있어, 쇠난 가축보건 위생소에서는 농장에서의 살모넬라균 대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살모넬라균 가운데 살모넬라 엔트리티디스(SE)와 살모넬라 티피뮤리엄(ST)은 특히 중요하며, 이들은 음식을 통해서 감염이 되므로 감염차단이 매우 중요하다. 농장 단계에서의 살모넬라균 대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들 수 있다.

1) 계사에서의 대책

- (1) 계분제거(1주간~10일간에 1번이상 실시)
계분제거후 가능한 범위내에서 소독 실시
- (2) 계사출입구에 발소독조 설치
- (3) 계사별 전용 장화 사용
- (4) 쥐, 비둘기, 까치 등의 침입방지
- (5) 먼지, 거미집과 알집을 제거한다
- (6) 닭에게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하여 가능 한 환우를 금지한다.
- (7) 도태후 계사의 철저한 세척과 소독 실시

2) 계란에 대한 대책

- (1) 집란작업은 청결한 손으로 실시
- (2) 계란이 계사내에 방치되는 시간을 최소화한다.
- (3) 계란의 보관에 주의(청결한 장소, 냉암소 등에 보관한다.)

또한 농장에서 실시하는 살모넬라균 대책과 더불어 소비자가 올바르게 계란을 보관 및 취급하는 방법도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NK. 2002. 9.)